대사회 역할 강화·각종 규제법령 완화 이끌어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
제37대 집행부 주요 종책 성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10월 31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고불식이 열암곡 일원에서 봉행됐다. 사진은 고불식 직후 주요 내빈의 기념촬영. 진우 스님은 이 자리에서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시 천명했다.


지난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광주 자비신행회가 주최한 요리교실에 참여한 뒤 친해진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진우 스님.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약 50억원 약정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도 순차적으로 진행돼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 60년 갈등 풀어내
승려노후복지 기반 다지는 요양병원도 개원


지난여름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예천군을 방문해 수해지역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해병대 제1사단을 찾은 진우 스님.

'천년을 세우다'

2007년 엎어진 채로 발견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통일신라 8세기 후반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불은 높이 5.6m에 무게 약 70톤 규모로, 불상의 코와 지면 바위의 거리가 불과 5㎝밖에 되지 않아 '5㎝의 기적'으로도 불린다.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모시는 것이 불교중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명상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종단적 불사 '천년을 세우다'를 전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뒤 전국교구본사와 주요사찰, 단체, 개인 등이 잇달아 불사금을 약정하면서 7개월간 약 50억원을 모연하는 기염을 토했다.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안정성과 종교·문화재적 가치, 국민여론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불사를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입불과 현상을 유지하되 주변을 정비하는 두 안이 유력한 상황.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든 불교를 다시 중흥시키겠다는 신실한 원력은 같다.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또 다른 기둥,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은 명상지도자들의 모임과 연구위원회 회의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계종 미래본부가 연말까지 국내외 명상 프로그램을 전수조사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향후 세워질 종단 명상센터를 찾는 대중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국내외 불교명상뿐만 아니라 타종교 명상, 비종교 명상을 비롯해 각 명상센터의 위치와 시설, 종교성, 운영방식도 포함된다.

조계종 차원의 명상센터 건설은 기본계획서 초안이 완료된 상태다. 건립 부지로는 서울 안암동 개운사 부지가 유력하다. 개운사 부지로 최종 결정되면 구체적인 건립계획서를 거쳐 내년에는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관람료 감면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행은 60여 년간 이어진 해묵은 갈등을 해소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거쳐 4일부터 사찰 방문객의 무료입장을 시행했다. 온 국민이 향유하는 전통문화인 불교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하고자 문화재보유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고, 국가는 감면비용을 지원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사찰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징수하기 시작했다. 국립공원입장료 도입 후 1970년부터 통합 징수돼 오다가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면서 공원 내 사찰과 탐방객들의 갈등은 깊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5월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해 사찰 등의 문화재관람료 감면 시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해 관련 예산이 책정·승인돼 비로소 '사찰 문화재관람료 폐지'라는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올해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예산은 419억 원이며, 감면 대상 사찰은 총 64곳이다. 대부분 국립공원 내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보유사찰이다. 다만 시도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인 강화 보문사, 부여 고란사 등 5개 사찰은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를 유지한다. 이외에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은 전기료를 일부 지원받아 사찰의 문화재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관람 편의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가법령 개정

그동안 전통사찰이 갖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제대로 담지 못하던 국가법령은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다. 지난 8월 24일엔 매장문화재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탑과 전각, 부도 등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문화재에 대해 사찰의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 같은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 간주해 사찰 소유 건조물에서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추정했다. 개정안은 탑과 사리, 사리장엄구가 동일체라는 점을 인정하고, 경내에서 발굴된 성보의 소유권을 사찰로 추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어 의미가 크다. 앞으로는 경내 시발굴조사에서 나타난 매장문화재도 불교적 성격이 명확할 경우 소유권 판정절차 없이 사찰 소유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개정된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 경관의 가치 증진을 위해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와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자연공원 경관 보존·관리를 위해서만 협약을 맺을 수 있어 전통사찰이 여러 규제와 제한에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최근인 이달 초엔 전통사찰 주택분 종부세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는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합산배제 대상은 주택 건물과 주택의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며, 연간 사용료가 해당 부속토지 공시가격의 1000분의 20 이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은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거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한 주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보아 종부세 합산대상이 됐다. 이로 인해 종단소속 일부 사찰에 수백만원부터 수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면서 사찰 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승려복지 안정화

지난 5월 3일 종단이 직영하는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한 건 승려복지 안정화를 위한 기틀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일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들이 병고의 걱정을 덜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전문 요양병원이 처음으로 마련됐기 때문이다. 의료법인 인덕원과의 업무협약을 거쳐 2008년 개원한 안성시 파라밀요양병원이 종단 직영시설로 전환된 것. 앞서 의료법인 이사장이었던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은 전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에게 파라밀요양병원 운영을 요청했지만, 자승 스님은 종단 직영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총무원에 운영을 제안하면서 업무협약이 급물살을 탔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올해 3~4월 1차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4층에 스님 전용 병실 10개와 휴식 공원을 조성했다. 스님들이 고급스럽고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24년부터는 건물 2~3층 일반병동을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승려 전문요양병원으로 명실상부 제 모습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승려복지회는 스님들이 임종까지 승가의 위의와 존엄을 지키도록 돕기 위해 불교 전통 다비장 설치·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 권역별, 교구별 다비시설 현황을 파악한 후 모범적 사례를 수집해 시설과 의례의식을 표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종단과 사찰에서 장례실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종단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전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원력의 1년…한국불교 중흥 기치 높이다

취임 1주년 진우 스님이 걸어온 길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 등
'천년의 세우다' 종책 불사 집중
매일 108배, 신심 증진 모범도
법문·봉사로 대중 소통 행보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주 남산 마애부처님을 일으켜 세워 드려야겠습니다. 넘어진 천년을 일으켜 세운다면 앞으로 천년 동안 국운이 창성하고 국민들은 평안할 것입니다."

"삶이 곧 불교이며 불교가 곧 삶인 현장 포교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불교의 전통 수행방식을 현대화해 다가서겠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사 중 일부다. 취임사를 통해 밝힌 대국민 제안과 약속은, 곧 진우 스님의 원력(願力)이었다. 원력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원한 바를 이루는 노력이다. 2022년 9월 28일 취임 이래 진우 스님의 1년도 원력을 이루기 위한 실천행, 그 자체였다.

진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천명했고,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실천하기 위한 실무 조직인 '미래본부'를 설립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31일에는 제37대 집행부와 직접 경주 남산 열암곡을 찾아 마애불 앞에서 108배를 하며 불사의 시작을 부처님께 고했다. 또한 올해 4월 19일에는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진우 스님은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은 미래 천년을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다. 그 주춧돌 위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미래 천년이라는 건물을 올려야 한다. 바로 불교의 새로운 중흥"이라며 "새로운 미래의 '천년을 세우다'는 우리 불교의 중흥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문화대국이 되는 국운융창의 새로운 천년을 세우는 엄중한 뜻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원력 아래 마애불 현장에서는 천일기도가 이뤄지고 있으며,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우 스님이 직접 전문가 팀을 구성해 스터디를 하며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중흥'을 위한 진우 스님의 원력실천 행보는 종무행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중의 신심 고취와 포교 진흥의 원력을 세운 진우 스님은 이에 따라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있다. 실제 진우 스님은 지난해 9월 28일 취임 이래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부처님 전에 108배를 올렸다. 취임 100일인 지난 1월 5일 1차 회향을 했지만, 진우 스님의 '원력의 108배'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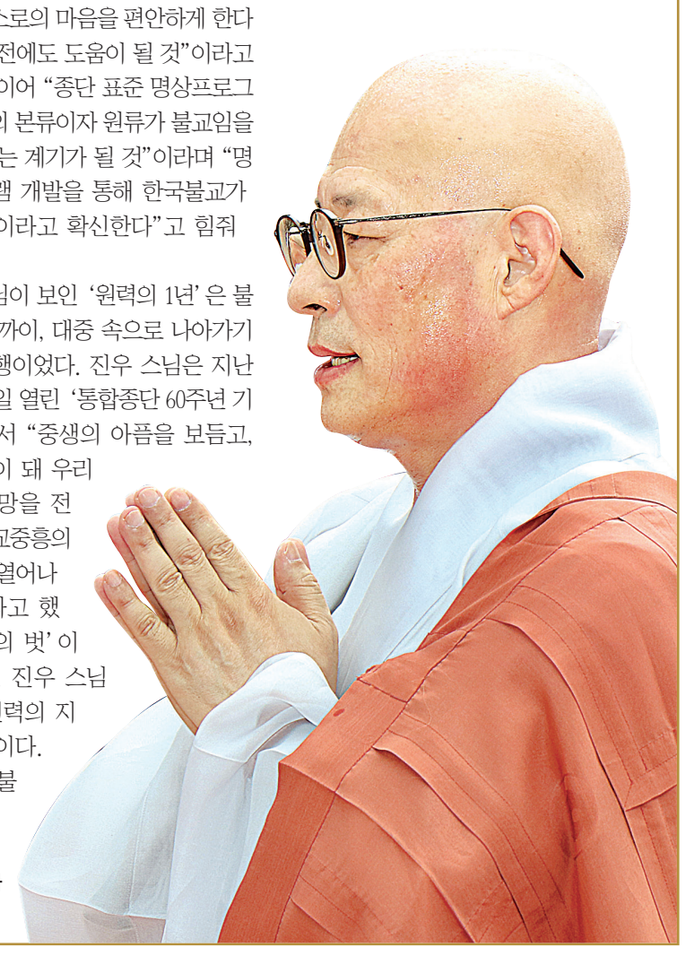
이 같은 진우 스님의 모범은 불자 대중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했다. 취임 100일 108배 현장서 만난 조계사 지장법회 회원 박수경(59, 경기 군포시) 불자는 "행사에 동참하러 왔다가 총무원장 스님이 108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절을 하게 됐다"면서 "100일을 함께 정진하며 다시 발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매일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사찰, 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법문하거나 축사를 한다. 또한 청소년, 대학생, 장애인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만나며 소통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는 불자들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한 진우 스님의 노력들이다.

특히 진우 스님은 만나는 모든 대중에게 명상 수행을 권한다. 지난 3월 30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 국제불교박람회 '명상리더 100인과 함께하는 담마토크'에서 강연자로 나선 진우 스님은 "불교에서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 인과를 알고, 연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면서 "괴로움의 인과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선 명상"이라고 강조했다.

취임 200일인 4월 15일 광주 자비신행회 방문행사에서도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은 명상의 본류이자 원류가 불교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힘줘 말했다.

진우 스님이 보인 '원력의 1년'은 불교가 더 가까이, 대중 속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살행이었다. 진우 스님은 지난해 11월 10일 열린 '통합종단 60주년 기념법회'에서 "중생의 아픔을 보듬고, 세상의 벗이 돼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해주는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세상의 벗'이 되는 불교. 진우 스님이 세운 원력의 지향점일 것이다. 그 끝에는 불교중흥이 있다.



신중일 기자